

2008년 3월 30일

붉은 암송아지

말씀: 민19:1-9

요절: 민19:1-9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동물이라고 하면 단연 ‘어린 양’을 꼽습니다. 창세기부터 즐기 차게 나오는 짐승이 바로 어린 양입니다. 성전에서 쓰이는 희생물 역시 양이 압도적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예표하는 한 동물은 ‘**붉은 암송아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붉은 암송아지를 통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본문을 간단히 요약하면 • 진영 밖에서 끌려가 죽은 붉은 암송아지(3) • 피가 뿌려진 붉은 암송아지(4) • 완전히 불태워진 붉은 암송아지(5) • 붉은 암송아지의 재(9)입니다. 주님은 붉은 암송아지의 규례를 통해 대속의 원리와 구원 그 이후 성도들의 거룩한 삶에 대한 방법을 제시해 주십니다. 구원의 감격을 누린 성도가 죄로 인해 구원의 기쁨은 고사하고 구원의 확신마저 흔들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구원 그 이후에 죄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고민하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구원 그 자체가 거룩한 삶을 보증해 주지 않습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을 통해 복음을 새롭게 되새기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빕니다.

1-2절입니다.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주가 명령한 법의 규례가 이러하니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로 하여금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아직 멍에를 메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네게로 끌어오게 하고](1-2). 주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붉은 암송아지’에 대한 규례를 주셨습니다. 암송아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실 때 바치게 한 제물입니다(창15:9).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나를 위하여 삼 년 된 암송아지와 삼 년 된 암염소와 삼 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하라”(창15:9)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에는 정제 불명의 사망자가 있을 때 그 죽은 자의 시체에서 가장 가까운 도시에 있는 장로들이 ‘아직 부리지 않고 멍에를 메지 않은 암송아지 한 마리를 취하고’(신21:3) 인적이 없는 골짜기로 데려가 목을 꺾어서 죄를 속해야 했습니다. 성경에서 암송아지는 어린 양과 더불어 속죄에 사용되었습니다. 암송아지의 다른 용례를 찾아 보면 삼손이 자신의 아내를 ‘내 암송아지’(삿14:8)라고 했고, 이집트를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 같다(렘46:20)고 말하며, 배교하는 이스라엘을 ‘뒤로 물러서는 암송아지같이 뒤로 물러섰다’(호4:16)고 말합니다. 에브라임은 ‘길들인 암송아지’(호10:11)로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걸핏하면 금으로 된 송아지를 만들어 제사를 지내고 숭배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출애굽 때 광야에서 행한 첫 번째 우상 숭배 역시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오 이스라엘아, 이것들이 너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신들이로다”(출32:4)고 외쳤습니다. 주님은 이들에게 ‘붉은 암송아지’를 통해 경계와 교훈을 주시며, 동시에 장차 올 진리를 예표하십니다.

지금 본문에는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아직 멩예를 떼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끌고 오라고 합니다. 암송아지는 백성들이 끌고 와야 합니다. 이 암송아지는 다른 제물들처럼 성막이나 성전 제단이 아니라 진영 밖으로 끌려 갑니다. 이 부분은 우리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시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밑그림입니다. 특히 ‘붉은 암송아지’라고 말함으로써 우리 주님이 온 세상의 죄를 짊어 지신 채 피를 흘리는 모습을 보여 줍니다. 이스라엘 율법에는 암송아지의 털 중에 2개 이상의 검은 색이나 흰색이 보여도 제물에 쓰지 못했다고 합니다. 전신이 온전히 붉은 그런 암송아지를 골랐던 것입니다. 첫 사람 아담은 붉은 흙에서 나왔습니다. 아담이란 이름 자체가 ‘붉은’이란 뜻입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다는 것은 우리 주님의 죄없는 순결함, 완전성을 말합니다. 아직 멩예를 떼지 않았다는 것은 누군가의 강요나 강제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헌물이 되셨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죄의 짐에 눌려 본 사실이 없는 죄를 알지도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고후5:21). 하지만 주님은 백성들에게 끌려서 재판장으로 나왔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3절입니다. [너희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자기 앞에서 잡게 할지니라.](3). 백성들에게 끌려온 붉은 암송아지는 제사장 엘르아살이 받아서 진영 밖으로 끌어내었습니다. 아론이 아니라 엘르아살이란 점에 주목하십시오. 당대의 대제사장은 분명히 아론이었습니다. 1절에서 백성들이 ‘붉은 암송아지를 모세와 아론 앞으로’ 끌고 오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붉은 암송아지는 대제사장 아론이 아닌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관저로 끌려오셨고, 제사장들의 손에 잡혀 죽임을 당했습니다(마26:65).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란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진영 밖은 소의 고기, 가죽, 똥을 불로 태우는 곳입니다(출29:14). 진영 밖은 재를 버리는 곳입니다(레4:12). 진영 밖은 죄인들을 처형하는 곳입니다(레10:4). 진영 밖은 부정한 자들의 거처로 문둥병자들이 병이 있는 날 동안에 살아야 하는 곳입니다(레13:46). 진영 밖은 백성들의 저주를 받은 자를 끌어내어 회중들이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돌로 치던 곳입니다(레24:14). 전염병이나 기타 질병(나병, 유출)이 있거나 죽은 자들로 더럽게 된 자는 진영 밖으로 내보내게 되어 있었습니다(민5:2).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주의 징계를 받아 나병이 걸렸을 때 이레 동안 진영 밖에 갇혔습니다(민12:15). 진영 밖은 살인자를 처형하는 처형 장소였습니다(민15:35). 성경이 말하는 진영 밖이 어떤 곳인지 감을 잡았을 것입니다. 붉은 암송아지는 성막이 아니라 진영 밖으로 끌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부정한 자들을 격리하고, 가두고 죄인들을 죽이는 처형 장소가 바로 ‘진영 밖’입니다. 우리 주님은 진영 밖에서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자기 자신의 피로 백성을 거룩히 구별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느니라. 그러즉 우리가 그분의 수치를 짊어지고 진영 밖에 계신 그분께로 나아가자.](히13:12-13). 흠도없고 점도 없는 붉은 암송아지가 진영 밖으로 끌려 가듯, 죄 없으신 주님께서 죄를 짊어지고 유대인들 가운데 죄인들을 처형했던 해골이라는 곳에 끌려가셔서(마27:33)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4절입니다.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회중의 성막 앞을 향해 직접 그 피를 일곱 번 뿌리고](4). 암송아지는 단지 죽임을 당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진영 밖으로 끌려와 죽임을 당했지만 그 피는 ‘회중의 성막 앞을 향해’ 뿌려졌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린 주님의 피는 자신을 회중 밖으로 끌어내어 죽인 바로 그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피는 혼의 속죄를 위해 있는 것입니다(레17:11,14). 붉은 암송아지의 피가 회중의 성막 앞을

향해 뿌려진 것은 백성의 속죄를 위한 것입니다. 그 피를 일곱 번 뿌린 것은 이 일이 주님이 행하신 일임을 드러냅니다. 주님은 언제나 일곱으로 일하십니다. 사람들은 십진법을 씁니다. 10은 이방인의 수요, 세상의 수입입니다. 주님은 7진법을 쓰십니다.

“회중의 성막 앞을 향해”란 말에 주목하십시오. 회중의 성막에는 누가 거하고 계십니까? 주 하나님이 계십니다. 피는 언제나 주님께 드려지는 것이요, 주님이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흘린 피는 주 하나님께 드려진 것입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린 피 역시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9:14,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자신을 점 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행위로부터 너희 양심을 깨끗하게 하여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히9:14). 엘르아살은 자신의 손가락에 피를 찍어서 회중의 성막을 향해 뿌렸는데 이것은 우리 주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손가락은 성령을 예표합니다. 누가복음 11:20,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마귀들을 내쫓으면 분명히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눅11:20). 붉은 암송아지의 피가 제사장 엘르아살의 손가락을 통해 뿌려진 것은 우리 주님의 피가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뿌려진 것임을 말해 줍니다.

5절입니다. [그 암송아지를 자기 눈앞에서 태우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태우게 하고](5). 붉은 암송아지는 모두 태워졌습니다.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모두 태웠습니다. 이는 우리 주님의 죽으심이 단지 몸의 고통과 죽음만이 아닌 혼이 지옥의 불 속에 던져지는 것을 예표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번제 헌물이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땅의 심장부에 들어갈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마12:40). 자신의 혼이 지옥에 들어갈 것임을 잘 아셨습니다. 이런 진리는 대부분의 교회에서 거의 선포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주님의 혼이 지옥 불 속으로 던져진 것을 알지 못하거나 들어도 믿지 않으려 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그곳에 내려 놓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백성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버려 두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하여금 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임이니이다.](행2:27). *행2:31, 엡4:9.

주님이 받으신 고난은 붉은 암송아지가 완전히 다 태워지듯이 철저하고 완전한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몸은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에 찢리시고, 못에 박히시고, 창에 찢리심으로 온 몸의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주님은 붉은 암송아지를 태우는 제물로 쓰심으로써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와 같이 고난’ 당하신다는 것을 보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의 피, 흠없고 점없는 붉은 암송아지와 같은 희생만이 유일한 길임을 알려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속입니다. 어린 양이나 붉은 암송아지는 죄를 대신하는 대속물이었습니다. 대속물의 죽음, 피, 태워지는 것 등을 통해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이 무엇이며, 우리의 죄 값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대속물에게 가해지는 어떤 것은 본래는 우리 자신이 감당해야 할 것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당하고, 피를 흘리고, 태워지는 붉은 암송아지와 십자가에 못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진노와 벌을 받아야 할 죄인인지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속물입니다. 주님이 합법적으로, 기쁘시게 받으시는 유일한 대속물입니다. 고로 주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의 죄 값이 지불되었고, 주님의 피를 통해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음을 받았고, 주님의 고난과 지옥으로 던져짐을 통해 우리는 죄의 권능으로부터 해방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는 복된 자들입니다.

6절입니다.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주홍색 실을 취해 암송아지를 태우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6). 붉은 암송아지를

태울 때 그 속에 함께 던져 넣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백향목, 우슬초, 주홍색 실입니다. 이 셋은 나병환자가 깨끗하게 될 때 쓰는 것들입니다. 레위기 14:3-7, [제사장은 진영으로부터 나가서 볼지니, 보라,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이 나았으면 제사장은 명령하여 정결하게 될 자를 위해 살아 있는 정결한 새 두 마리와 백향목과 주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한 마리는 흐르는 물 위에서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할지니라. 살아 있는 새에 관하여는 제사장이 그 새와 백향목과 주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것들과 그 살아 있는 새를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에 담가 나병에서 정결하게 될 자에게 일곱 번 뿌려 그를 정결하다 선언하고 그 살아 있는 새는 빈 들판에 놓아줄지니라.](레14:3-7). 보십시오. 나병은 불치병으로 죄의 특성, 죄의 속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병입니다. 그런데 나병이 깨끗하게 될 때 새 두 마리를 잡아다가 한 마리는 잡고, 한 마리는 피를 흘린 후에 그 피와 더불어 '백향목과 주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나병 환자에게 일곱 번 뿌립니다. 이로써 그는 깨끗하게 나왔음을 입증했습니다. 죽은 새는 죽은 몸을 살아서 놓아 주는 새는 새롭게 된 나를 예표합니다. 옛 사람과 새 사람, 십자가와 부활을 각각 예표하는 것입니다.

붉은 암송아지가 불태워지는 곳에 백향목과 우슬초와 주홍색 실을 던져 함께 태운 것은 나병환자와 같이 죄로 인해 더럽혀진 우리가 정결하게 되었음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Watchman Nee는 이 부분에서 솔로몬이 식물을 논하면서 백향목과 우슬초에 관해 논했는데(왕상4:33) 이는 세상의 모든 것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지고 가셨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태운다는 것입니다. 옛 사람에게 속한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 못박아 버린다는 것입니다. 주홍색 실은 우리의 죄를 표현할 때 '주홍같다'(사1:18)고 말합니다.

7-8절입니다. [제사장은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목욕한 뒤에 진영에 들어갈지니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암송아지를 태운 자도 자기 옷을 물로 빨고 물로 목욕할지니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7-8). 제사장은 붉은 암송아지를 피를 뿌린 후에 자기 옷을 빨고 목욕한 뒤에 진영에 들어가야 합니다. 암송아지를 태운 이 역시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재판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형을 집행한 이들은 그 죄에 대해 깨끗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못 박았던 예수 그리스도, 자신들이 모욕하고, 침을 뱉고, 조롱하고, 때리고, 옷을 나누어 제비를 뽑고 기타 등등의 일을 했습니다. 그들은 알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무죄하지 않습니다. 붉은 암송아지를 죽이고, 피를 흘리고, 태우는 일을 한 후에는 그들이 부정했듯이 우리 주님을 못 박았던 제사장들, 장로들, 관원들은 결코 깨끗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옷을 빨고 목욕을 해야 합니다.

9절입니다. [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재를 거두어 진영 밖의 정결한 곳에 둘 것이요, 또 이것을 간직하여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해 거룩히 구분하는 물에 쓰게 할지니 이것은 죄로 인해 정결하게 하는 것이니라.](9). 이 부분이 다른 모든 희생제와 구분되는 점입니다. 태워버린 암송아지의 재를 거두라는 것입니다. 그 재를 진영 밖의 정결한 곳에 보관하라고 합니다. 이 재를 간직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거룩히 구분하는 물에 쓰게 하라고 하십니다. 이전에 지은 죄는 붉은 암송아지를 태울 때 다 해결되었습니다. 백향목과 우슬초, 주홍색 실을 던져 넣음으로 모두 다 태워 버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태운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정결케 된 성도, 거룩하게 된 성도, 의롭게 된 성도들을 위해 주님은 따로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태워버린 재를 간직해서 정결케 하는 물로 쓰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은 후에 짓게 될 죄와 허물을 잘 아십니다. 암송아지의 재물은 구원 그 이후의 죄를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 [이제 너희는 내가 일러 준 말로 깨끗하게 되었으니](요15:3)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깨끗한 자, 목욕한 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온 몸이 깨끗하니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요13:10a). 목욕을 한 자, 온 몸이 깨끗한 자라도 발을 씻어야 합니다. 그런데 발은 누가 씻겨 주십니까? 주님이 씻겨 주십니다. 우리의 몸을 씻겨 주신 분이 우리의 발도 씻겨 주십니다. 붉은 암송아지가 과거의 죄 뿐 아니라 미래의 죄를 위해서도 재를 남겼듯이 우리 주님은 자신의 희생을 통해 우리의 과거의 죄를 깨끗이 해결하실 뿐 아니라 구원 그 이후의 짓는 죄들을 해결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죄를 위한 또 다른 희생물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또 다른 희생 제사가 필요치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죽음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에 대한 완전한 해결책입니다.

주님은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는데 베드로가 “절대로 내 발을 씻지 못하시리이다”(요13:8a)고 거부했습니다. 그 때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요13:8)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씻어 주십니까? 주님 자신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씻겨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은 누구십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해 ...

- 진영 밖에서 죽은 붉은 암송아지(3)
- 피가 뿌려진 붉은 암송아지(4)
- 불태워진 붉은 암송아지(5)
- 붉은 암송아지의 재(9)가 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해 잿물이 되십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의 발을 씻어 주십니다. 우리의 부정과 불법, 허물을 깨끗이 씻어 주십니다. 잿물은 붉은 암송아지의 온전한 희생과 죽음의 결과이듯 우리의 죄를 깨끗케 하는 주님의 피, 말씀의 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은 주님의 온전한 희생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케 한다고 했습니다(요일1:7). 동시에 우리가 우리 죄를 시인하고 자백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합니다(요일1:9). 우리는 죄없는 완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죄의 몸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악한 현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의 대속으로 단번에 영원히 의롭고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우리는 날마다 자신을 성찰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씻음 받고 자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붉은 암송아지의 잿물로 자기를 씻는 사람은 이미 붉은 암송아지를 통해 나의 죄를 위한 희생이 완전하게 치루어졌다는 것을 압니다. 그 사실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아갈 때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피 흘리신 주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16-17절을 보면 부정한 자들에게 ‘잿물’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 예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잿물로 자신을 정결케 하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20절, [그러나 부정한 사람이 자기를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주의 성소를 더럽힌 것이니 그러므로 그 혼은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가 거룩히 구분하는 물을 자기에게 뿌리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민19:20). 구원 받은 성도들이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지 않을 때 그는 더 이상 성도로서 능력있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성령의 기쁨이나 즐거움, 구원의 기쁨을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능력을 얻을 수 없습니다. 죄를 이기는 능력, 시험을 감당할 힘도 없습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이는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며 너희가 곧 그 성전이기 때문이니라.](고전3:17).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로되(롬8:13). 모두 동일한 경고입니다.

구원받은 후에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면 정결케 하는 잣물을 사용하십시오. 교리적으로 이 구절을 적용하면 대환란 때 회개하는 유대인들에게 해당됩니다. [그 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기 위한 샘이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주민들을 위하여 열리리라. ¶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 날에 내가 그 우상들의 이름들을 이 땅에서 끊어 기억되지도 못하게 하며 또 대언자들과 부정한 영을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리라.](슌13:1-2). 이스라엘을 씻어 주는 '샘'이 열립니다. 따로 보 관해 둔 잣물이 있듯이 이들의 더러움을 씻어 줄 '샘'이 있습니다.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피 흘리신 주님, 그 혼이 지옥의 고통 속에 던져지신 주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어 주십니다. 만일 자꾸만 반복되는 어떤 죄 때문에 괴롭다면 이미 그 죄들을 위해서도 피 흘리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물을 주셨음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의 물로 우리를 씻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꾸준히 말씀을 읽고, 묵상하십시오.